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 협력·대응 논의

전북도·전북테크노파크, 구축 업무협약 체결 27개 기관·기업과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위한 간담회 가져

전북도와 전북테크노파크는 16일 전북테크노파크 대강당에서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한 27개 기관·기업과 예비타당성조사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24일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사업이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본격적인 예비타당성 조사를 앞두고 협약 체결 기관·기업 상호협력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지난해 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총 27개 기관·기업과 성공적인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상호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골자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는 재생에너지 생산을 활용하여 탄소배출이 없는 친환경 그린수소를 생산·저장·운송·활용하는 전주기 수소산업 육성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다.

기재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에 의해 내년 6월까지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하고, 8월에 분석 결과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사업 시행 여부를 심의·결정할 예정이다.



전북도와 전북테크노파크는 16일 전북테크노파크 대강당에서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한 27개 기관·기업과 예비타당성조사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기관·기업들은 기재부의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한 대응방안 마련과 상호 협력체계를 더욱더 견고하게 구축, 전북도를 중심으로 그린수소 산업을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편, 기업들은 현재 100MW규모의 수전해 설비 용량의 증설과 신속한 사업 착수를 제언했다.

국내 수전해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용량 증설과 신속한 사업착수가 필요하며, 100MW 규모를 상회하는 그린 수소 생산 설비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만큼, 확장성을 고려한 클러스터 구축과 추가적인 사업발굴도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전병순 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을 위해서는 관계 기관·기업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뒷받침 돼야 하므로 지속적인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기자



전북도-익산시, 추석 명절 안전 캠페인 전북도와 익산시는 16일 익산 북부시장에서 추석명절 대비 안전 점검과 방역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추석 연휴를 맞아 왕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 및 주변 방역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전북도, XR·메타버스 융합 세미나 개최

교육·문화·국방 분야 XR·메타버스 추진방향·사례 공유

전북도가 산업기반의 디지털화로 활용이 확대되고 있는 XR(확장현실, extended reality)과 메타버스의 다양한 사례 및 현황 공유를 통해 두 분야를 활성화 하기 위한 세미나를 16일 일광대학교 송산기념관과 온라인으로 병행 개최했다고 밝혔다.

XR(확장현실, extended reality)은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홀로그램 등의 기술을 통합하는 용어로, 가상 공간에서 소통하고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메타버스를 구현하기 위한 기반 기술 중 하나다.

세미나에는 IG U+ 김선희 박사 조이그림 장호영 이사 전남대 신승성 교수, 이정민 한국예술종합대 교수 이상원 민군협력진흥원 전문위원 등 신학연 전문가가 참여해 메타버스 추진 방향 및 사례, 발전전략 등을 발표했다.

XR 분야에서는 최상호 디지털융합센터 센터장, 강홍준 원광대학교 교수가 XR 추진현황 및 방향, 전북도 지원 사업 등에 대해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XR에 기반한 메타버스는 비대면 서비스 확산에 따라 교육, 문화,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전북도가 메타버스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신학연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병순 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전북도와 익산시는 홀로그램 기술개발 예타, XR 소부장 개발지원센터 유치 등 XR산업의 육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그동안 추진한 성과가 메타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의체 구성, 국가사업 발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유호상기자

귀농·귀촌 정착 맞춤형 지원

전북도, 분야별 전문가 111명 선정 '귀농귀촌 지원단' 운영

전북도가 귀농·귀촌인들이 생활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지역 사회 정착을 돕는 귀농·귀촌 정착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지난 15일 밝혔다.

도 귀농·귀촌 정착지원사업은 도내로 이주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귀농·귀촌인이 영농이나 농촌생활 등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 분야별 전문가를 지원해 문제를 해결하고 빠른 정착을 돕는 사업이다.

이에 귀농·귀촌인들의 다양한 현장 애로를 감안해 경영, 영농기술, 회계, 마케팅, 관로개척, 갈등해결 등 분야별 전문가 111명을 선정해 '귀농귀촌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지원범위는 농촌생활, 영농기술, 농업경영 등 총 3개 분야, 27개 세부항

목으로 구성에 맞춤형 지원에 나서고 있다.

도움이 필요한 귀농·귀촌인은 '전북도 농어촌종합지원센터 누리집(www.jbt.or.kr)'에서 신청하면 무료로 상담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귀농귀촌 정착지원사업에 선정된 귀농귀촌인은 전문가에게 1회 4시간 최대 2회까지 현장 코칭을 받는다.

전문가는 문제점을 진단해 귀농귀촌인이 개선사항을 정확히 인지하도록 돕고, 다양한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해결방안도 제시한다.

사업에 참여한 군·시·구·읍·면·동에서는 "귀농귀촌을 준비하며 농사를 글로 배

웠으나 책과 강의대로 농사가 되지 않아 답답하던 중 전문가 도움으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하며, 스스로 지피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신원식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전북도는 도시민의 안정적인 귀농귀촌을 돕기 위해 영농 멘토지원과 현장코칭 등 농업현장에 필요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며 "귀농귀촌인 개개인이 추구하는 삶을 영유할 수 있고, 지역사회에 빨리 적응해 '전북이 제2의 고향'이 될 수 있도록 정착 지원책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기자

전북도,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 가져

전북도가 2021년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를 열고, 시·군 공무원들과 세외수입 확충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부과 징수할 수 있는 자체 수입 중 지방세 수입을 제외한 과태료, 수수료 등 나머지 수입이다.

이날 대회에서 발표된 6개 연구과제는 사전 서면심사를 거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로 효과성, 확산 가능성, 결과 지속 가능성 등 여러 항목에 걸쳐 심사한 결과, 전주시가 최우수상, 익산시·부안군이 우수상, 군산시·김제시·완주군은 장려상에 선정됐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국가안전대진단·추석 명절 대비 재난취약시설 민·관 합동 안전점검

전북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터미널,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도는 민관합동점검과 함께 지난 8월 23일부터 추진 중인 2021년도 국가안전대진단에 대한 시·군 추진

상황 전반을 살펴보면서 점검의 효성을 도모했다.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전북도 안전관리지원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시·군 소방서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함께 전통시장 및 터미널 등 10여 개소에 대한 표본 점검을

실시하고, 현지 시정 가능한 것은 즉시 조치하고, 안전상 문제 시정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도록 했다.

아울러, 도내 14개 시·군의 2021년도 국가안전대진단에 대해서도 민간 전문가가 참여 현황, 자율안전 점검 실천운동 추진현황, 기관장 관심도, 코로

나19 방역지원 교육 실시 여부 등을 살펴, 내실있는 국가안전대진단이 되도록 철저히 기한다는 방침이다.

실상에도 사회재난과장은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통해 위해요소를 사전에 정비하고, 지속적으로 실시해 재난위험 및 취약요소에 대해 사전에 발굴 조치하는 물론, 안전한 전북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진안군보건소 2021~2022 절기 인플루엔자 접종

구분	접종 대상	위탁의료기관 접종기간	보건소 접종기간	보건지소 접종기간	비고
어린이 (2008.1.1~2021.8.31 출생)	• 2회 접종 대상 생후 6개월~만 2세 생애 첫 접종자	2021년 9월 14일 ~ 2022년 4월 30일	2021년 9월 14일 ~ 백신 소진 시		무료
	• 1회 접종 대상 만 9세 이상~만 13세 만 9세 미만 2회 접종 완료자	2021년 10월 14일 ~ 2022년 2월 28일	2021년 10월 19일 ~ 백신 소진 시		
임신부(임신부 확인 서류 지참)		2021년 9월 14일 ~ 2022년 4월 30일	2021년 9월 14일 ~ 백신 소진 시		
어르신	• 만 75세 이상 (46.12.31. 이전 출생)	2021년 10월 12일 ~ 2022년 2월 28일	2021년 10월 19일 ~ 백신 소진 시		무료*
	• 만 70~74세 (47.1.1~51.12.31. 출생)	2021년 10월 15일 ~ 2022년 2월 28일	2021년 10월 19일 ~ 백신 소진 시		
	• 만 65~69세 (52.1.1~56.12.31. 출생)	2021년 10월 21일 ~ 2022년 2월 28일	2021년 10월 19일 ~ 백신 소진 시		
만 3세~6세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진안군인 자)		※기관마다 상이	2021년 10월 19일 ~ 백신 소진 시		

*보건소·보건지소 9,500원, 위탁의료기관은 기관마다 비용이 다름

▲위탁의료기관 안내

- 어린이 및 임신부(2개소): 진안군의료원, 우리가정의학과의원
- 어르신(6개소): 진안군의료원, 구세의원, 김홍기가정의학과의원, 송외과의원, 진안의원, 우리가정의학과의원, 마령가정의학과의원, 마이외과정형외과의원

진안군 보건소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